

산중잡곡(山中雜曲)

金得研(김득연)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~01

臥龍山(와룡산) 내린 아래 半畝塘(반무당)을 새로 여니
 띄 업슨 거울에 山影(산영)이 잠겼는다
 이 내의 經營(경영)하는 뜯든 그를 보려 하노라
 * 와룡산, 반무당 : 경북 안동에 있는 산과 연못

와룡산 내린 아래 반무당을 새로 여니
 티 없는 거울에 산그림자 잠겼구나.
 이 몸이 연못 만듦은 그걸 보려 함이러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~02

池塘(지당)에 活水(활수)이 드니 노는 고기 다 헬로다
 松陰(송음)에 清籟(청뢰)이 나니 琴瑟(금슬)이 여기 있다
 안자서 보고 듣거든 도라갈 주를 모르로다
 * 청뢰 : 맑은 바람
 * 금슬 : 거문고와 비파

연못에 물 흐르니 노는 고기 많이 있구나.
 솔그늘에 바람 맑으니 금슬이 여기 있다.
 앉아서 보고 들으니 돌아갈 줄 모르누나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~03

솔 아래 길을 내고 못 우회 덕을 뱉니
 風月(풍월) 烟霞(연하)은 左右(좌우)로 오느피야
 이 스에 한가히 안자 늘는 주를 모르리라.

솔 아래 길을 내고 연못 위에 대 쌓으니
 달 바람과 노을은 좌우에서 오는구나.
 이 사이에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~04

늘거도 막대 딛고 병 드러도 눕디 아냐
 솔 아래 두르 거어 못 우회 안자 쉬니
 못노라 이 엇던 할아버오 나도 몰라 하노라.

늘어도 막대 짚고 병들어도 눕지 않아
 솔 아래 두루 걸어 연못 위에 앉아 쉬니
 못노라, 이 어떤 할아버인가 나도 몰라 하노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~05

집 두혜 즈차리 뜯고 문 알퐁 물근 심 기러
 기장밥 너게 짓고 山菜羹(산채갱) 므로 슬마
 朝夕(조석)게 風味(풍미)이 足(족)흠도 내 분인가 하노라

집 뒤에 고사리 뜯고 문 앞에 샘물 길어
 기장밥 익게 짓고 산나물을 물로 삶아
 조석에 음식 맛 좋음도 내 분수인가 하노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~06

빅 고프거든 버구렛 밥 먹고
목 마르거든 바갯 물 마시니
이리흐는 가운데 즐거오미 또 인느다
놈의외 浮雲(부운) 鬨든 富貴(부귀)이사 브를 주리 이시라

배가 고프거든 바구니의 밥을 먹고
목이 마르거든 표주박의 물 마시니
이리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또 있구나.
남들의 뜯구름 같은 부귀 부러울 줄 있으랴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~07

山中(산중)에는 白雲(백운)이 잇고
山外(산외)에는 綠水(녹수)이 잇다
구름 차자 녹물 끼고 물긋 조차 고기 낚가
一身(일신)이 한가히 다니니 萬事(만사)이 無心(무심)하야라

산중에는 흰 구름이 있음이요,
산 밖에는 푸른 물이 있음이라.
구름 찾아 나물 캐고 물가 따라 고기 낚아
이 몸이 한가히 다니니 모든 일이 무심하구나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~08

봄의는 고지 피고 녀름에는 綠陰(녹음)이 난다
錦繡 秋山(금수추산)애 불근 드리 더욱 도타
흐물며 白雲 蒼松(백운 창송)이사 닐어 므슴 흐리오

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난다.
비단 편 듯 가을 산에 밝은 달이 더욱 좋다.
하물며 흰 구름 푸른 솔을 일러 무엇 하리오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~09

生涯(생애)는 數莖白髮(수경백발)
心事(심사)는 一片 靑山(일편청산)
雪月 風花(설월 풍화)애 四時 佳興(사시 가흥) 다 ㄹ꺄다
이 외에 즐거운 이리 또 업슬가 흐노라

우리들 살아감은 몇 가닥 백발이요,
우리네 마음은 한 조각 청산이라.
설월 풍화에 네 계절의 흥 담겼으니
이 외에 즐거운 일이 또 없을까 하노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~10

늘거 희을 일 업서 山中(산중)에 도라오니
松菊(송국) 猿鶴(원학)기 다 나를 반기느다
아희야 술 ㄹ꺄 브어라 樂而忘憂(낙우망이) 흐리라.

늙어서 할 일 없어 산중으로 돌아오니
솔 국화와 원숭이 학이 모두 나를 반기누나.
아희야, 술 가득 부어라 근심 잊고 즐기리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~11

龍山(용산)애 봄비 개니 고사리 채 슬져다
石枕(석침)애 松風(송풍)이 부니 잠이 절로 쉰다
아희야 羹므로 달혀라 벌 못 기다려 흐노라

용산에 봄비 개니 고사리가 살쨍 있다.
석침에 솔바람부니 잠이 절로 깨어난다.
아희야, 국물을 달여라, 벗을 못 기다리노라.

* 용산, 석침 : 지명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12

버디 오마커늘 술 길홀 손소 쓰니
無心(무심)한 白雲(백운)은 쓸수록 고터 난다
더 白雲(백운)아 洞門(동문)을 즈모지 마라 올 길 모를가 하노라

* 동문 : 동네 입구에 세운 문

벗이 온다 하기에 소나무 길 손수 쓰니
무심한 백운은 쓸수록 다시 생겨난다.
백운아, 동문을 닫지 마라. 올 길 모를가 하노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13

허여센 늘근 하라비 술 아래 비겨시니
희롱하느 松子(송자)는 안즌 알피 느려딘다
寂寞(적막)히 말하 리 업스니 웃고 주고 보노라

머리 허연 늙은 할아버지 술 아래 누웠더니
희롱하는 술방울은 앓은 앞에 떨어진다.
적막해 말할 이 없으니 웃고 주워 보노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14

桃源(도원)이 잇다 하야도 네 듣고 못 봤더니
紅霞(홍하)이 滿洞(만동)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
이 몸이 또 었더하노 武陵人(무릉인)인가 하노라

무릉도원 있다 해도 옛날 듣고 못 봤더니
붉은 노을 가득하니 여기 짐짓 거기로다.
이 몸이 또 어떠한가, 무릉인인가 하노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15

商山(상산) 늘근 하라비 採芝歌(채지가)을 부르더니
千載(천재) 芝谷(지곡)애 나도 늘거 부르노라
넷 사람의 즐기던 마술 이 내 마숨애 알리로다

상산 늙은 할아버지가 채지가를 부르더니
천년 뒤 지곡에서 나도 늙어 부르노라.
옛 사람 즐기던 맛을 이내 마음이 알리로다.

- * 상산사호(商山四皓) : 중국 진시황 때에 난리를 피하여 산시성 상산에 들어가서 숨은 네 사람으로 호(皓)란 본래 희다는 뜻으로, 이들이 모두 눈썹과 수염이 흰 노인이었다는 데서 유래하다.
- * 채지가 : 거문고의 곡명.
- * 지곡 : 지치가 있는 골짜기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16

商山洞(상산동) 느려 와서 芝谷(지곡) 구위 도라드니
松月池臺(송월지대)에 쉰 하라비 안자 잇다
잇다감 白雲(백운)을 조차 採芝(채지)하려 가노라

상산동 내려와서 지곡 굽이 돌아드니
송월지대에 머리가 쉰 할아버지 앉아 있네.
가끔씩 백운을 따라 지치를 캐러 가노라.

- * 지곡 : 지치가 있는 계곡
- * 송월지대 : 송월지에 있는 대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17

山下泉(산하천)에 귀를 시으니 人間事(인간사)를 뒤 드르리오
澗畔松(가반송)을 벗 사르니 歲寒心事(세한심사)을 내 아노라
하물며 早晚功業(조만공업)은 雲卷書(운권서)에 인는다

- * 세한심사 : 풍류를 즐기는 은사의 마음
- * 운권서 : 자연 속에 묻힌 책

산밑 샘에 귀 씻으니 인간사를 어찌 듣고
강가 솔을 벗 삼으니 세한심사 내 아노라.
하물며 늦은 공업은 자연 속에 묻혔노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18

世上(세상)에 사람드리 모다 모다 채 어리다
살 줄만 알고 주글 주를 모르는다
엇다 다 두고 두고서 먹을 주를 모르는다

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모두 어리석네.
살 줄만 알고 죽을 줄은 모르누나.
어디에 다 두고 두고서 먹을 줄을 모르는가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19

山中(산중)에 병 든 모미 내 호운자 한가하야
死生 飢寒(사생기한)을 하늘께 브터 두고
平生(평생)에 갑업시 듯는 거슨 明月淸風(명월청풍) 뿐이로다

산중에 병든 몸이 내 홀로 한가로워
살고 죽고 춥고 주림을 하늘에게 맡겨두고
평생에 값없는 것은 명월청풍뿐이로다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20

내 貧賤(빈천) 보내려 혼들 이 貧賤(빈천) 뉘게 가며
님의 富貴(부귀) 오과다 혼들 더 富貴(부귀)이 내게 오라
보내디도 청티도 말오 내 분새로 흐리라

내 빈천을 보내려니 이 빈천 뉘게 가며
님의 부귀 오라 한들 저 부귀 내게 오라.
보내지도 청하지도 마라. 내 분수대로 살리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21

功名(공명)도 잇고 더마다 백로리도 만코 만코
富貴(부귀)는 더욱 마다 시름이 하고 하다
아마도 이 내 貧賤(빈천)이사 즐거오미 그지 업다

공명도 잇고 저마다 따를 이도 많고 많은데
부귀를 더욱 마다 하는 사람 많고 많다.
아마도 이 내 빈천이야 즐거움이 끝이 없노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22

本性(본성)이 無識(무식)하야 아므 일도 다 모르니
東西(동서)을 내 알며 南北(남북)인들 내 아더냐
아마도 모르는 거시니 모르는 대로 흐리라

본성이 무식하여 아무 일도 다 모르니
동서를 어찌 알며 남북인들 내 알더냐.
아마도 모르는 것이니 모르는 대로 하리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23

百年(백년)이 三萬六千日(삼만육천일)이라
이 압피 열메나 하니
이리 쏘 언제 고타 놀리 (二句缺)
우리는 오늘 너일 모리 놀고 댕일 댕일 노르리라

백년은 삼만육천 일이라.
이 앞에 얼마나 남았나 하니
이렇게 또 언제 다시 놀 수 있으리
우리는 오늘 내일 모래 매일매일 놀리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24

人間(인간)에 원만흔 일을 上帝(상제)의 알외너이다
百年 前程(백년 전정)이 하 갖가와 설위이다
원컨댄 不老長生(불로장생)을 分擘題給(분간제급)호쇼셔

인간 모든 일을 상제께서 아시나이다.
백년 앞길이 너무 가까워 서러우니
원컨대 불로장생을 분간하여 내리소서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25

上帝(상제) 너기샤디 내 말도 어엿브다마는
白髮 公道(백발공도)을 내 엇디 處分(처분)호리
아지기 첫 百年(백년)으란 依願施行(의원시행)호노라

상제께서 여기시되 네 말도 가엿지만
백발 오는 이치를 어찌 할 수 있으리오.
아직은 첫 백년이야 뜻대로 하리이다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26

六十年(육십년)을 다 디낸 후에 쏘 두 히를 지내엿더니
오늘날 봄을 보니 쏘 흔 히 쏘 오도다
댕일에 쏘 흔 히 쏘 흔 히 호면 千百年(천백년)에 니르리로다

육십년 다 지내고 또 두 해를 지냈더니
오늘날 봄을 보니 또 한 해가 오는구나.
매일에 한 해 또 한 해 하면 천백 년에 이르리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27

네 노던 벗님네를 손 곱피 헤여 보니
數十年來(수십년래)에 바니나마 업노피야
우리는 사라인는 제 댕일 이리 노르리라

옛날 놀던 벗님네들 손뚱아 세어 보니
수십 년 이래에 반이나마 없어졌네.
우리는 살아 있을 때 매일 이리 노니노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28

어린 제는 즈라고졌더니 즈라니는 늘기 설빠
늘글 줄 아던들 즈라디나 마를 거슬
아마도 못 절믈 人生(인생)이 아니 놀고 엇테리

어릴 때는 자라려 했더니 자라나니 늘기 쏘다.
늙을 줄 알았던들 자라지나 말을 것을
아마도 못 젊어질 인생 아니 놀고 어찌리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29

右(우) 謹言所志矣段(근어소지의단)
陳地立案成給(진지립안성급)호소
劉伶(유령)의 노던 디 醉鄉(취향)이 무계셔이다
世上(세상)에 爭望(쟁망)호 리 업게 依法成給(의법성급)호쇼셔

삼가 뜻하는 바 말씀이 있으시며
하려는 바 있으시면 모두 다 이룩하소서.
유령이 놀던 곳인 취향도 황폐하니,
세상에 다들 이 없게 법을 따라 이루소서.

- * 근어소지의단 : 삼가 뜻하는바 말씀.
- * 진지립안성급 : 뜻하는 바가 잘 이룩됨.
- * 유령 : 역사상 술을 좋아했던 인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30

上帝(상제) 녀기샤디 狀辭(장사) 的實(적실) 히올디라두
陶淵明(도연명) 李太白(이태백)도 立案(입안) 몬 낸 싸히어니
天下(천하)에 公物(공물)을 사마 모다 모다 노라스라

상제께서 여기시되, 장사가 사실이라도
도연명 이태백도 뭐라 못한 땅이거니
천하에 함께 지니고서 모두 모두 놀아보세.

- * 장사 : 소장(訴狀)에 적힌 글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31

世間(세간)에 민망흔 이리 詩艱難(시간난) 설웨이다
雪月 風花(설월 풍화) 만나거든 디접호기 어려워라
許多(허다)호 錦章繡句(금장수구)을 의 몸 題給(제급)호쇼셔

세상에서 민망한 게 시 짓기 어려움이라.
설월풍화 만나면 대접하기 어렵구나.
허다한 좋은 글귀를 떠오르게 해 주소서.

- * 금장수구 : 좋은 문장과 구절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32

上帝(상제) 녀기샤디 古文書(고문서) 相考(상고)히온디는
三百篇(삼백편)과 李杜詩(이두시)와 百家語(백가어)을
분분 分給(분급)호잇갈든
데레도 不足(부족)디 아니커니 이제 엇디 有餘(유여)케 호리

상제 여기시되 옛 글을 견주어 보니
시경 삼백과 이백 두보와 제자백가의 글을
사람을 시켜 모두 나누어 주었거늘
저래도 부족하지 않으니 이제 어찌 넉넉히 하리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33

또 고타 녀기샤디 네 가난 불가난이로다
詩能窮人(시능궁인)이라 그러호여 그러토다
아쁘려 不足(부족)이다 호야도 시마치 거즈말로 퇴호노라

또 다시 생각하니 내 가난은 불 가난이로다.
시 지으면 사람이 궁해지니 그렇도다.
아무리 부족해도 시야 거짓말로 하겠는가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34

다른 한 간 草屋(초옥)개 세간도 하고 할샤
나하고 칩히고 벼로 부든 므스 일고
이 草屋(초옥) 이 세간 가지고 아니 즐기고 엇디 흐리.

다만 한 간 초가인데 세간이 많고 많다.
나하고 책하고 벼루 붓은 무슨 일인가.
이 초옥 이 세간으로 아니 즐겨 어찌 하리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35

梅蕊(매과)은 冬至(동지)에 피고 菊芽(국아)는 臘月(납월)에 핀다
이 엇던 乾坤(건곤)에 그리 ㄹ추 샘견느뇨
이 仙翁(선옹) 늘근가 흐야 락일 봄이

매화는 동지에 피고 국화는 선달에 핀다.
이 어떤 천지造化 그리 갖추어 생겼는고.
이 선옹 늙었는가 하여 매일 바라봄이로다.

● 山中雜曲(산중잡곡) 49 ~ 36

내 흐마 늘건느냐 늘는 주를 내 몰래라
ㅁ슴은 저머 이서 벗들과 놀려 하니
엇다엇다 저믄 벗들은 나를 놀다 흐는다

내 벌써 늙었는가, 늙은 줄을 내 몰라라.
마음은 젊어 있어서 벗들과 놀려 하니
어기야 젊은 벗들은 나와 놀자 하는구나.

● 山中雜曲(산중잡곡) 49 ~ 37

내 양직를 내 못 보니 내 그더도록 벌써 늘건느냐
엇그제 少年(소년)이어든 그리 수이 늘글소냐
아므려 놀다 놀다 흐야도 나는 몰라 흐노라

내 모습을 내 못 보니 그토록 벌써 늙었느냐
엇그제 소년이어든 그리 쉽게 늙을 손가.
아무리 늙었다 하여도 나는 몰라 하노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38

저믄 벗님네야 늘그니 웃디 마라
점기는 저근 더디오 늘기사 더 쉬오니
너희도 날 꺽트면 쏘 우스 리 이스리라

젊은 벗님네야, 늙은이 웃지 말라
점기는 잠시뿐이요, 늙기는 더 쉬우니
너희도 나같이 되면 또 웃는 이 있으리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39

七十年(칠십년)을 다 디넨 후에 쏘 八年(팔년)에 다드니
한가흔 이 모미 壽域中(수역중)에 늘거 간다
오늘날 쏘 봄을 만나 擊壤歌(격양가)을 흐노라

칠십년을 다 지낸 후 팔년이 다 되니
한가한 이 몸이 수역중에 늙어간다.
오늘날 봄을 만나 격양가를 부르노라.

- * 수역중 : 장수하는 사람이 사는 곳
- * 격양가 :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세월을 즐기는 노래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40

히히 히히 또 히히 히히 (제2구 빠짐)
이러도 히히 히히 더러도 히히 히히
딱일에 히히 히히하니 일일마도 히히 히히로다

히히 히히 또 히히 히히
이래도 히히 히히 저래도 히히 히히
매일에 히히 히히하니 하는 일마다 히히로다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41

어리고 또 어리니 흐는 이리 다 어리다
이리흠도 어리고 더리흠도 어리도다
아마도 어린 거시니 어린 대로 흐리라

어리석고 또 어리석어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.
이리함도 어리석고 저리함도 어리석다.
아마도 어리석으니 어리석은 대로 하리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42

내의 즐히이미 즐흔 등의 더 즐흐다
生涯(생애)도 즐흐고 學業(학업)도 즐흐여라
두어라 本性(본성)이 즐흐거니 므스이라 아니 즐흐리

내가 즐렬하니 즐렬한 중 더 즐렬하다.
생애도 즐렬하고 학업도 즐렬해라.
두어라 본성이 즐렬하니 모두 다 즐렬하네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43

애고 늙기 설온체가 늙지 말고 사랏고자
세월이 하 쉬 가니 아미타 다 늘글노다
비로기 늘글지라도 오래 사라 노을리라

애고 늙어 서러우니 늙지 말고 살았으면
세월이 빨리 지나 아무러케나 늙었도다.
비록에 늙을지라도 오래 살며 놀리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44

늙기 다 설거니와 오래 살기 어려오니
진실로 오래 살면 늘글소록 더 놀리라
뒤라 樂而忘憂(낙이망우)하야 늙는 줄을 모르리라

늙기 다 서러우니 오래 살기 어려우니
진실로 오래 살면 늙을수록 더 놀리라.
두어라 즐거워 시름 잊고 늙을 줄을 모르리라.

* 낙이망우 :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음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45

萬卷書(만권서)를 對(대)하야서 千古(천고) 버들 싱각하니
天地間(천지간) 네던 길히 一胸中(일흉금)에 다 오느다
진실로 네 벗과 네 길을 알면 아니 네고 어찌리오

책 만권을 대하여 먼 옛 벗을 생각하니
세상 사이 가던 길이 가슴에 오는구나.
진실로 옛 벗과 옛 길 알면 아니 가고 어찌하리.

● 山中雜曲(산중잡곡) 49 ~ 46

늘그면 죽기 쉽고 죽으면 범 업느니
늘거도 사나는 제 벗과 노미 괴 울흐리
우리는 그런 줄 아라 벗과 락일 놀리라

늡으면 죽기 쉽고 죽으면 벗 없으니
늡어도 살았을 제 벗과 늡이 그 울흐리.
우리는 그런 줄 알아 벗과 락일 놀리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47

내 뜻 아는 벗님내는 모다 오소 혼디 노새
모다와 혼디 놀미 괴 아니 즐거오라
하물며 風月(풍월)이 無盡藏(무진장)하니 글노 노자 흐노라

내 뜻 아는 벗님네들 모두 오소. 함께 노세.
모두 와서 함께 노니 그 아니 즐거우랴.
하물며 풍월이 무진장하니 그와 놀자 하노라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48

어와 벗님네야 모다 모다 죄 오시니
이 山亭(산정)이 늘그니 오늘날 더 즐겁다
비로기 林深路黑(임심로흑)하니 마나 즈로 즈로 오슈셔

어화, 벗님네야 모두모두 다 오시니
이 산정자도 늡었으니 오늘날 더 즐겁다.
비록에 숲 깊고 길 어두워도 자주자주 오시오.

* 임심로흑 : 숲이 깊고 길이 어둡다.

● 산중잡곡(山中雜曲) 49 ~ 49

늘그니 늘그니를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
반가고 즐거오니 늘근 줄을 모를로다
진실노 늘근 줄을 모르거니 락일 만나 즐기리라

늡은이 늡은이를 만나니 반갑고 즐겁구나.
반갑고 즐거우니 늡은 줄을 모르노라.
진실로 늡은 줄 모르니 락일 만나 즐기리라.